

전통시장 우수 상품·먹거리 한눈에... 디지털 혁신지원 '뽕뽕'

2022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성료

‘혁신하는 전통시장’ 주제 행사
시장·상점이 활성화 유공자 포상
마술쇼·공연 등 관람객 큰 호응

전국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과 먹거리를 알리고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되새긴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경북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소진공, 경상북도, 영주시,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해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 우수 상품, 지역 특산 먹거리를 선보여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박람회는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동네상권’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잘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이 활성화에 기여



이영 중기부 장관(가운데)이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기부

한 유공자들에게 주어지는 석탑산업훈장은 전주남부시장 하현수 상인회장이, 산업포장은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이상수 이사장이 각각 차지했다. 하현수 상인회장은 상인연합회 회장 재임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율 방역 활동에 앞장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어 내 상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중기부와 쿠팡, 동반성장위원회, 상인연합

회 간 상생협약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노하우를 전통시장에 공유해 전통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이 쿠팡이츠에 입점할 경우 모바일 판매 교육을 제공하고, 쿠팡의 노하우가 담긴 입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 쿠팡이츠를 통해 발생한 전통시장 상인 매출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쿠팡 박대준 신사업 부문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던 쿠팡

이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상인과 소비자 사이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협력자 역할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2022년 전국 청년상인 요리대결’도 열렸다.

청년상인 요리대결은 청년몰에 대한 고객의 관심을 제고하고 대회에 참가한 청년상인과 소속 청년몰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회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청년상인 8개 팀이 현장에서 준비한

메뉴를 직접 조리하며 그동안 전통시장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자랑했다.

소진공은 전통시장 우수 청년상인들 간 요리경연을 컨셉으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국민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전통시장은 더 좋은 먹거리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은 물론 온라인 진출, 배송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혁신에 나서면서 시장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흘간의 행사는 이밖에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들의 실력을 뽐내는 경연과 마술쇼, 폼바 공연 등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유통환경은 과거보다 더 빨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동네 상권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소진공-기보,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중기부 산하기관 상환부담 완화 동참
거치기간 1년 단위 부여... 최대 3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부처 산하기관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참한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 안〉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추가지원 조치		
기존 거치기간	거치기간 추가	1년 단위로 최대 3년 거치기간 추가		
2년	1년	1년	1년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올해 8월말까지 대출 약 2조7000억원, 보증 약 76조 5000원 등 146만건에 걸쳐 누적으로 79조원을 지원했다.

중진공, 소진공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 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은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025년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키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023년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내년 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같은해 10월부터 정상 상환한

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환약정은 1대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 보증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추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10 페스타’ 이벤트

홈쇼핑이 가을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일 홈쇼핑에 따르면 우선 10월 한달간 전 구매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갤럭시 Z플립4’를 증정하는 ‘홈쇼핑 10 페스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한달간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누구나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홈쇼핑 관계자는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홈쇼핑을 통해 합리적 쇼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FW 웨딩 프로모션’ 실시

시몬스가 가을 결혼 성수기를 맞이해 ‘FW 웨딩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3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특정 매트리스 최대 30% 할인 ▲신제품 침대 프레임과 토크세트, 퍼니처 10% 할인 ▲매트리스 혹은 특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 증정 등을 준비했다.

FW 웨딩 프로모션과 별도로 ‘웨딩 패키지’도 선보인다. 뷰티레스트 ‘지젤’ 등 인기 매트리스 3종 중 하나와 국민 프레임 ‘D2178’ 등 특정 프레임일 함께 구매하면 10%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MZ세대 “中企 일자리 선택조건 1순위 ‘워라벨’”

경력 도움 긍정적... 낮은 연봉 불만

MZ세대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경력 등에선 유리하지만 낮은 연봉에 대해선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MZ세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선택 조건 1순위는 ‘워라벨’이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9년

부터 올해 5월까지 3년5개월간 카페·블로그, 커뮤니티, 지식in 및 잡플래닛 등 소셜·온라인 미디어에 나타난 MZ세대의 중소기업 취업관련 데이터 26만 8329건을 수집·분석해 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중소기업 취업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MZ세대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주로 언급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수집한 데이터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고민을 언급한 경우는 6만 8245건으로, 분석 결과 MZ세대 구직자의 관심도는 2019년 당시 ‘자기성장가능성’이 40.5%, ‘근무시간’이 14.9%, ‘급여수준’이 14.4%로 1~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엔 ▲근무시간

(25.8%) ▲자기성장가능성(21.3%) ▲급여수준(17.3%) ▲조직문화(13.1%) 순으로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직자의 경우도 ‘조직문화’보다는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 재직자가 중소기업에 계속다니는 이유로는 ‘좋은 동료’와 ‘워라벨 가능’, ‘커리어와 이직을 위한 경력 쌓기’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워라벨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 이 큰 모습이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직장동료 음주단속 방해하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형
- ▲ ‘인공지능(AI)은 발명자될 수 없다’... 특허청, 자연인 한정 결론



- ▲ 가을철 국립공원 취사 등 불법 집중단속... 3400명 투입
- ▲ 3년간 지붕공사 중 추락사망 138명... ‘가을철’ 주의보



- ▲ “세계 5위 암센터 서울아산병원, 통합진료로 폐암 치료 길 활짝”
- ▲ 창원 마산만 해안서 물고기 19t 떼죽음